

朝鮮王朝實錄抄 滿蒙史料

滿蒙史의 研究는 우리 文化와의 연계성과 함께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모두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方面의 研究를 뒷받침하여 줄 史料의 발달이 극히 적은 범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滿蒙史 研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史料는 물론 『明實錄』과 『朝鮮王朝實錄』을 놓을 수 없다. 이 두 資料는 이 지역은 물론 이 지역과 韓國 및 中國과의 關係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朝鮮王朝實錄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어느 자료보다 귀한 것이다.

그러나 滿蒙史 研究를 위하여 방대한 量의 朝鮮王朝實錄을 섭렵한다는 것은 研究者에게 과중한 努力과 時間의 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덜고 研究者에게 보다 더 좋은 研究業績을 기하기 위하여는 史料集의 정리 출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비록 朝鮮王朝實錄抄 中國史料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상호 보완하여 주는 바가 있어 本社에서는 이를 中國史料와 함께 影印출판, 研究者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다.

一九八二年三月

凡 例

一、本書는 景印 太白山史庫本 李朝實錄에서 明代の 만주와 몽고에 관한 記錄을 抄錄 編纂한 것이다.

二、明代的 만주, 몽고에 관한 同實錄의 기사를 광범위하게 거의 빠짐없이 이를 거두었다. 다만, 몽고 및 몽고 민족에 관한 기사는 아주 적으므로 특별히 編은 가리지 아니하였다.

三、明代的 만주와 그 주변에 있어서의 만주민족의 활동 事蹟 社會習俗 등을 전하는 기사는 이것을 網羅하고, 여기에 李朝와 明朝의 女眞민족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상의 시책과 시설을 전하는 기사와 아울러 遼東과 조선과의 交涉에 관한 상항을 附載시켰다. 그리하여 이런 사항중 오로지 朝鮮 자체에 관한 것은 특히 卷에 附載 자를 붙여 참고로 하는 뜻을 표시하고, 또 활자의 크기를 작게 하여 만주 본위의 기사와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다.

四、索引 一卷을 人名, 地名을 찾아보기에 편리케 하였다.

五、원본에는 異字, 俗字가 매우 많으며 字體 또한 한들이 아닌데 그것은 오로지 인쇄 제작할 때에 新舊의 鑄字를 섞어서 쓴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상식적으로 처리하였다.

六、俗字, 異字의 대부분은 正字로 고치었다. 그러나, 너나 원본대로 따른 것도 있다. 正俗 二體 이상을 아울러 쓴 것은 원칙적으로 正字로 통일 一貫하였다. 潛·潛·潛·潛을 潛으로 통일한 파 위다. 그러나 원본의 舊를 보존한 것도 있다.

다. 俗字·異字로써 一貫한 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을 답습하였다. 贅歎 따위. 그러나, 예외도 있다.

一、원본에서 틀림없이 誤字 脫字·衍字·倒錯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대로 답습해 쓰고 그에 그 교정 정오표를 붙였다. 다만, 그것을 의문체로 다룬 것은 편자의 신중과 결양에서, 독단으로 여겨지기를 피하고 싶어서 이가. 그리고, 부주의로 인한 誤植인지, 의식적으로 한 慣用(音通을 포함)인지 당장 결정하기 곤란한 것에는 영(一)을 붙였다.

一、記事에 관계되는 干支(日次)를 掲出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가지 구별을 두어 원본의 체재를 바르게 전하려고 힘썼다.

가, ○干支(本文)

이것은 원본 그대로이다. 즉, 원본에서 記事 머리에 干支를 掲出한 경우이다.

나, 干支○(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기사 머리에 간지를 掲出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관계 간지가 분명한 경우이다. 즉, 先行의 는 기사의 머리에 掲出한 干支와 後續되는 기사의 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없을 때에는, 이 干支들 사이에 실린 기사는 모두 先行의 干支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여 무방하다.

다, 干支^{先行}——干支^{後續}○(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기사 머리에 干支를 掲出하지 않고, 또 관계되어야 할 干支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이다. 즉, 先行 干支와 後續 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있을 때는 이 干支들 사이에 수록된

기사에 관계되는 干支는 일단 의문시함을 慎重을 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특히 「나」와 구별하여 원본의 재를 보존하였다.

라, 그리고, 같은 干支에 관계되는 틀 이상의 기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干支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카」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다음 기사에 만 같은 干支를 掲出하여 干支(本文)으로 하였다.

一九八二年 三月

景仁文化社

目次

宣祖實錄

宣祖二十六年(萬曆二十一年).....	一
宣祖二十七年(萬曆二十二年).....	七
宣祖二十八年(萬曆二十三年).....	二六
宣祖二十九年(萬曆二十四年).....	五三
宣祖三十年(萬曆二十五年).....	九六
宣祖三十一年(萬曆二十六年).....	一〇一
宣祖三十二年(萬曆二十七年).....	一二三
宣祖三十三年(萬曆二十八年).....	一三三
宣祖三十四年(萬曆二十九年).....	一四八

宣祖三十五年(萬曆三十年).....	一六二
宣祖三十六年(萬曆三十一年).....	一六六
宣祖三十七年(萬曆三十二年).....	一六九
宣祖三十八年(萬曆三十三年).....	一七六
宣祖三十九年(萬曆三十四年).....	一八四
宣祖四十年(萬曆三十五年).....	一八七

宣祖修正實錄

宣祖元年(隆慶二年).....	二八一
宣祖五年(隆慶六年).....	二八三
宣祖六年(萬曆元年).....	二八五
宣祖十一年(萬曆六年).....	二八六
宣祖十六年(萬曆十一年).....	二八七

宣祖十八年(萬曆十三年).....	二九四
宣祖二十年(萬曆十五年).....	二九五
宣祖二十一年(萬曆十六年).....	二九七
宣祖二十七年(萬曆二十二年).....	二九八
宣祖二十八年(萬曆二十三年).....	二九九
宣祖二十九年(萬曆二十四年).....	三〇一
宣祖三十四年(萬曆二十九年).....	三〇二
宣祖三十六年(萬曆三十一年).....	三〇三
宣祖三十九年(萬曆三十四年).....	三〇五
宣祖四十一年(萬曆三十六年).....	三〇八

光海君日記

光海君零年(萬曆三十六年).....	三一
--------------------	----

光海君元年(萬曆三十七年).....	三二五
光海君二年(萬曆三十八年).....	三三九
光海君三年(萬曆三十九年).....	三三八
光海君四年(萬曆四十年).....	三四二
光海君五年(萬曆四十一年).....	三五二
光海君六年(萬曆四十二年).....	三五五
光海君七年(萬曆四十三年).....	三六一
光海君八年(萬曆四十四年).....	三六四
光海君九年(萬曆四十五年).....	三六八
光海君十年(萬曆四十六年).....	三七〇
光海君十一年(萬曆四十七年).....	四二三
光海君十二年(萬曆四十八年).....	四八一

光海君十三年(天啓元年).....四九六

光海君十四年(天啓二年).....五四三

目次

宣祖實錄 卷三十四

二十六年正月

〔參〕丙寅○天兵各營領兵數目欽差提督薊遼保定山東等處防海禦倭軍務總兵官中軍都督府都督同知李如松標下中軍原任參將都指揮僉事方時春統領管下親兵原任參將李寧領馬兵一千名欽差管理經略中軍事務中協副總兵都督僉事楊元領兵二千名欽差征倭右營副總兵署都督僉事李如松領兵一千五百名欽差征倭右營副總兵都指揮使張世爵領兵一千五百名協守宣府東路統領營兵副總兵都指揮使任自強領宣府馬兵一千名統領遼東調兵原任副總兵都督同知李平胡領馬兵八百名統領南北調兵原任副總兵查大受領馬步兵三千名統領遼東原任副總兵王有翼領馬兵一千二百名鎮守遼東東路副總

兵都指揮使孫守廉領馬兵一千名統領保定薊鎮調兵原任副總兵王維貞領馬兵一千名統領昌平右營兵參將趙之牧領馬兵一千名統領薊鎮遵化參將李芳春領馬兵一千名義州衛鎮守參將李如梅領馬兵一千名統領遼鎮調兵參將李如梧領馬兵五百名遼東總兵標下管領夷兵原任參將楊紹先領馬兵五百名統領南北調兵涿州參將張應种領馬兵一千五百名統領浙直調兵神機營左參將都指揮使駱尙志領步兵三千名統領大寧營兵原任將張奇功領馬兵一千名統領山西營原任參將陳邦哲領馬兵一千名統領浙兵遊擊將軍都指揮使吳惟忠領步兵三千名統領宣大入衛班兵遊擊將軍宋大贊領馬兵二千名統領南兵遊擊將軍王必迪領步兵一千五百名統領大同營兵遊擊將軍高策領馬兵一千名統領浙兵遊擊將軍葉邦榮領馬兵一千五百名統領山東秋班經略標下禦倭防海遊擊將軍錢世禎領馬兵一千名統領嘉湖蘇松調兵遊擊將軍戚金領步兵一千名提督標下統領大同營兵

遊擊將軍谷燧領馬兵一千名統領宣府營兵遊擊將軍周弘謨領馬兵一千名統領薊鎮右營遊擊將軍方時輝領馬兵一千名陽河遊擊將軍高昇領馬兵一千名建昌遊擊將軍王問領馬兵一千名保定遊擊將軍梁心領馬兵一千名眞定遊擊將軍趙文明領馬兵一千名陝西遊擊將軍高徹領馬兵一千名山西遊擊將軍施朝卿領馬兵一千名統領保眞建遵調兵遊擊將軍葛逢夏領馬兵二千名右攻破平壤用四萬三千五百名追到軍兵八千名

甲戌○上引見禮曹判書尹根壽右副承旨沈喜壽入侍〔中略〕上曰卿何當來會一處耶根壽曰只俟宋經略之來耳喜壽曰遼東有獐子聲息經略來期未可的知也上曰中原視獐子如蚊蚋耳但以饋餉不繼不得進勦此賊此予所以每以糧餉爲慮也〔下略〕

宣祖實錄 卷三十九

二十六年六月

乙巳○禮曹啓曰倭賊彌漫北道時藩胡等以大羊之心蓄怨已久乘時竊發恣意殺掠焚蕩官舍無足恠也賊退之後固當問罪而在我兵力單弱寧舍忍而羈縻之況彼自誨禍相率來降則姑示撫綏之恩以安反側此一時之權宜慶源酋長吾羅赤等盡力開諭使之納降優示賞典聳動諸酋乃是鎮服藩服之策而其徒前職亦無考據自曹擅便爲難賞職高下議大臣處置上從之

宣祖實錄 卷四十

二十六年七月

乙亥○備邊司啓曰伏見咸鏡監司尹卓然狀啓柔遠鎮部落酋長等我國避亂人容護使得免禍云其誠可嘉請令該司照例論賞上從之

宣祖實錄 卷四十三

二十六年十月

○庚戌上御便殿謂左議政尹斗壽曰〔略中〕斗壽曰經年兵禍北道藩
胡久不上來宜送綿布以慰其心穩城藩胡癸未前後終始不叛亦
宜俵給藍布以固結其心〔略下〕

宣祖實錄 卷五十

二十七年四月

壬子○咸鏡道觀察使尹卓然馳啓甘坡分坊人進告賊胡不知其數圍城相戰魚面萬戶聞變馳進詳細看審則賊胡圍城我軍力盡賊胡分兩衛一時突入急擊城中權管及及第嚴信忠南定等逢箭賊胡衝火人家堡中男女老弱盡爲出走器械殆盡禦敵無策云南堡之憂甚於北道而今年則民方絕食不能出戶踰越高山峻嶺勢所不堪今此南道初試入格人當全數入送而無見在軍糧極爲悶慮備邊司覆啓南北道自經賊變之後軍卒死亡器械凋弊倉庫虛竭居民流散而胡人窺覘虛實憑陵不已雖極力措置猶懼難濟近觀咸鏡道前後狀啓於此數事未聞有講究施設之策南道自作仇

非加乙波知等處之變已極駭愕而今此甘坡堡陷城之事尤爲痛

心

略下